

“1000만명 관광객 찾는 글로벌 도시 발돋움 할 것”

광양시 관광진흥계획 중간보고회 브랜드 구축·킬러콘텐츠 발굴 제시

광양시가 관광객 1000만 명 달성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날 상항실에서 전문자문위원,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대표의 추진상황 보고와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광양관광의 비전, 방향성, 킬러콘텐츠, 실행력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할 마스터플랜으로 총 4대 전략, 19개 사업방안이 제시됐다.

4대 전략은 △광양다움을 담은 콘텐츠 발굴 △광양문화를 담은 콘텐츠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전략별 사업 계획으로는 △아이언아트 시티 브랜드 구축 △광양 바이브 투어 상품 개발 △광양형 K-콘텐츠 육성 등 광양관광의 잠재자원을 육성하고 광양관광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킬러콘텐츠 발굴이 제안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예산의 구체적 근거, 차별성을 가진 도시 네이밍과 △흥미 △재미 △심미 등 3가지 요인을 갖춘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됐다.

임채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은 “관광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 시대에 생활

인구를 늘리고 유동인구를 흡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면서 “우리 시는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양관광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가열차게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돼 최종보고회 때 광양관광의 비전과 방향, 실현가능한 전략 등을 담은 광양관광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안영준 기자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진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진월면사무소에서 후원금 기탁 및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전달식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월면 독지가 문승범씨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한 지정기탁한 후원금 200만원으로 김장을 하지 못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김장김치는 총 40세대에 5kg씩 협의체 위원 및 복지이장을 통해 전달됐으며, 제10기 진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이 새로 위촉되는 날 추진돼 그 의미를 더했다.

문승범 후원자는 “저의 작은 기부가 면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는 온정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순용 진월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김장김치 나눔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 더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청소년 문화콘서트’ 성황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광양시는 지난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 문화콘서트’를 열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6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오전 10시·오후 2시)에 걸쳐 진행됐다. 학교폭력이 본인 및 가까운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동임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공연과 연극, 인성 강연 프로그램 등 콘서트 형태로 실시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성장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본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주관 기금운용 성과분석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43개 지자체(기초 지자체 226개)가 2022회계연도에 운용한 2419개의 기금을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등 2개 분야, 7개 지표의 객관적 통계지표를 근거로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시는 △사업비의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인구·재정력 규모가 유사한 △순천시 △목포시 △나주시 등 ‘유형 지자체(전국 사·Ⅲ 그룹)’에서 1위(94점)로 평가됐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도 우수기관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지난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 문화콘서트’를 열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정인화 광양시장, 감동데이에 시민과 소통

연내 총 73건 시민의견 수렴

광양시가 소통·공감 시책 중 하나인 ‘광양 감동데이’를 통해 올 한 해 총 154명의 시민들을 만나 73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올 한 해만 광양 감동데이에 39팀 154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해병대 팔각회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 장비 지원 요청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담 철거 및 사용에 대한 비용 변상 요청 △우수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요청 △광양읍 죽림리 농공단지 조성 건의 △전세사기 피해대

책 마련 호소 등 총 7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34건은 신속 처리됐고, 예산이 소요되는 19건은 추진 중이다. 미해결된 20건의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양시는 식품가공업 공장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고, 복합민원(민원1회방문처리제)을 부서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는 등 업무처리체계를 개선했다. 또 광양읍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골목길 보존이 필요한 도로는 보존하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도로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기 위해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달 한번씩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리는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고충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광양시는 내년에 감동데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건강위험요인 개선 효과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종검진 수검자 116명 중 건강군 22명을 제외하고 위험군 94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한 결과,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감소한 대상자가 53명(56.4%)으로 높은 건강위험 요인 개선율을 달성했다.

ICT를 활용한 ‘모바일헬스케어’는 만

성질환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의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동 전송하고, 전담팀(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지도사·코디네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지원 사업이다.

월 3~4회의 건강, 운동, 영양, 금연 등의 1:1 집중 상담이 진행됐다. 서비스 시작 3개월, 6개월 후 서비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 위험요인 개선 여부

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계획을 제시 받았다.

5월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높은 지속참여율을 보였으며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욱 건강증진과장은 “내년에도 대상자 영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위험요인과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의료위기 가구에 100만원 기탁 시민경찰 5기 13명



광양경찰은 지난 18일 시민경찰 5기 13명이 과다한 의료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해 달라며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금 기탁으로 다리 절단위기에 놓인 A씨가 수혜를 받게 됐다. 90세 노모의 간병과 부양을 받는 A씨는 긴급하게 검사 및 수술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적지원 제한 및 본인부담금 초과 발생 등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양경찰서 시민경찰 5기 관계자는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대원은 연말 송년회 보다 광양읍에서 발굴된 위기 대상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을 모아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공적 지원의 한계를 민간단체와 함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어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